

(주)동우,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에 선정

글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미국 경제전문지 Forbes(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대 중소기업(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 가운데 (주)동우(회장 김동수, 대표이사 정창영)가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는 매년 연매출 10억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시장가치, 성장가능성, 부채비율 등을 종합 평가해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을 선정해 왔다.

이 중 국내 대표적인 닭고기 생산 전문 업체인 (주)동우가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월 1일 포브스에 따르면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망 중소기업 목록에서 한국 업체 수는 20개

로 중국과 홍콩(71개), 인도(39개) 다음으로 많았으며 대만(19개), 호주(13개), 태국과 말레이시아(각 9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포브스의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으로는 동우를 비롯 가비아, 디지텍시스템, 메가스터디 모건코리아, 브리지텍, 슈프리마, 우전앤한단, 우주일렉트로닉스, 엔씨소프트, 코원시스템, 파트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라IMS, 휴비츠, SD, EMW, TK, TLI 등이다.

정성가득, 신선가득 '참프레'

(주)동우는 1993년 2월 화성식품(주)로

본사 전경




설립, 1994년 육계 계열화 업체로 지정받았다. 그 후 1997년 1월 지금의 (주)동우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1년 도계육 HACCP 인증을 획득,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9월 '참프레' 라는 신규브랜드를 런칭해 '참프레'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무료 시식회 개최, 지면 광고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설립 이후 지금까지 농장에서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신선하면서도 위생적인 닭고기만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동우는 소비자와 투자자로 하여금 품질경쟁력,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인정받아 2006년 6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기업이 사회에 존재의 이유와 기업으로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내의 닭고기 산업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시해 나아가고 있다.

(주)동우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012억원으로 전년 동기 9,066억원 보다 11.6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43억5,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07억3,200만원 대비 33.77%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133억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97억8,700만원 대비 35.99% 늘었다.

(주)동우는 지금까지 보여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식문화에 기여하며 세계 시장에 나아가 품질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육계 계열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GRANDIOSE GOLF: WEB SENSATION ANYBODY ON

Forbes

Billion
A bulge for India, a bust for Japan and a first for Vietnam.

ON THE BUBBLE
HIS MARKETS CHINA'S FLATS, BUT ISN'T FRETTING. HERE'S WHY.

Dongwoo SOUTH KOREA

Its profit grew 92% over the last year
hatching and breeding chickens and processing parts, some for feed.

- ① (주)동우에서 생산되는 신선육
- ② 포브스가 올해 아시아 200대 우량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 ③ 포브스지 본문에 (주)동우가 소개되어 있다.